이번에 소개할 ppt는 일본의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차례대로 건축양식과 주거형태 그리고 지진설계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우선 건축양식의 경우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본다.

보통 건축물의 경우 목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기후의 특성상 습하고 지진이 잦아서 목조건축물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목재의 비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목조의 비중은 줄고 있고 그 대신 콘크리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진이 심한편이라 지진에 대처하기위해 내진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자자세한 것은 지진설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다다미의 경우 이전이랑 비교하면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분위기인데 우선 먼지와 오염에 약하며 방수성과 볏짚냄새 그리고 내구력이 약한편이라 전통적인 집이나 료칸 같은 곳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하면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결과 위생이 필요한 욕실에 변기가 있다는 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본의 주거형태

일본의 주거형태는 주택 아파트 맨션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주택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아파트는 보통 한국에서 생각하는 아파트 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일본의 맨션이 한국의 아파트에 가까운 편이다.

우선 주택의 경우 굉장히 아담한 편인데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신 대부분 2층이나 3층짜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공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규모가 작고 낮은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2층이지만 3층짜리랑 4층짜리로 지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이나 프리터나 학생처럼 돈이 적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또한 목조가 대부분이라 방음이 잘 안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맨션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는 일본에서 맨션으로 불리며 10층이상의 규모가 큰 건물을 의미한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튼튼한 구조의 건축물로써 아파트보다 시설,안정성 면에서 월등함을 가지고있다.

마지막으로 지진설계

이번 것은 본인도 신기하게 느꼈던 것인데 내진설계 이외에도 제진과 면진이 있다는걸 최근에 알게되었다.